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추석, 온 가족이 모여 드리는 예배

메시지

“민족의 축제”

(출애굽기 23장 14 - 19절)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추석은 일년 중 가장 즐기는 명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든지 일년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는 축제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도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인 축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며 유월절 마지막 기간을 무교병을 먹으며 기념하던 무교절이요, 두번째는 밀과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드린 맥추절, 세번째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年終)에 추수하여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는 수장절이었습니다.

기상창이 생긴 이래 가장 더웠다는 올 여름의 더위와 극심한 가뭄이 있었음에도 풍성하게 결실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흠뻑 젖어 있던 가족들이 모여 일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 이스라엘의 축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추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미있는 민족의 축제로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이스라엘의 축제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 축제였습니다.

추석의 유례에는 기독교적인 큰 뜻이 없지만 추수를 감사하고, 온 민족적으로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송편을 빚어 이웃과 나누는 날에 우리도 기쁨을 누리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쉽게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오늘도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됨을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입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기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행사 그 자체에 치중하다보면 내용이 부실해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축제에 기쁨이 아무리 넘친다해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공허한 기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온 가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 뿐 아니라 그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각오하며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2. 이스라엘의 축제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일년의 세번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명하신 주님께(출 23:17) 우리는 마음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11:6).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쁘시게 할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진보를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순종하고, 법사에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열심히 행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셋째,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개요가 주님을 만나 뉘우친 후 그가 토색한 것의 네배를 갚은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참된 봉사자로 살아야 합니다. ②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언행심사와 모든 생활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③ 무엇보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킨 삼대 절기의 공통적인 것은 감사의 축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은혜배부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섬기는 자유를 주신 것, 우리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법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의 축제는 사랑의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날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은총을 입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는 늘 감사하고, 자신은 회락을 누리며,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구제와 봉사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누는 풍성한 사랑의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명절 기간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 사랑의 축제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7:1		인	도
찬	송	 460		다	함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		출 23:14 - 19		인	도
설	교	 “이스라엘의 축제”		인	도
찬	송	 312		다	함
주	기			다	함

추석에 생각해 보는 일

조상숭배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추석이 되면 성도들에게 제사문제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더욱이 믿지 않는 가족이 많거나 가족 중에서 혼자 믿는 경우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 쉽다. 우리는 조상숭배의 수단으로서 제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거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

1.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다.

제사제도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국의 주나라는 사람이 유교철학을 만든 후 성리학에 의해 착상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제사제도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조상을 향해 제사하는 민족은 아프리카의 몇 개의 부족과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등 소수의 아시아 국가 뿐이다. 왕에 대한 숭배와 같이 여러가지 정치적 이념과 도구로서 중국 사람에게 의해 시작된 제사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것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로 잘못 알고 있다면 분명히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 기복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경적 입장에 위배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대제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제도에 기저한 사상을 보면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상숭배는 기복신앙에서 유래된 것이요 성경적이 아니다.

3.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은 조상을 곧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되므로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예배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와 구원을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해야지 형상이나 어떤 물질로 대신 할 수 없다. 죽은 조상을 두려워하고, 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찬양하는 감정을 가진다면 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이다.

4. 영생과 영사가 있음을 믿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1. 우리 예배의 대상은 죽을 인간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다(행14:13, 살전1:9)
2.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창조주에게 예배해야 한다.(행17:22 - 31)
2.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4. 특정한 기간에 제한된 조상에게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
5. 죽은 후에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에게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6. 제사로 부모를 기념하는 것과 성찬식 때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찬식 때에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을 결심하는 산 기억(living memorial)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라도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결심하며 간구해야 한다.

추석과 효 그리고 ...

나 종 영(집사)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사회화 됨에 따라 전통이나 풍속에 대한 수용 태도가 크게 변화하는 와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적은 것이 추석에 대한 풍속인 것 같다. 마치 '코리언 엑소더스'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고향이나 혈족을 찾아 대이동을 하며 이루는 행렬을 올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귀소본능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우리민족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할터이고, 군중 속의 소외와 고독에 시달리던 현대 도시인들이 일시적이거나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효'를 중요시하는 민족정서가 주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그러나 효의 정신이 희박해지고 잘못 실천되어져가는 서글픈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효를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명기 5장 16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불명의 언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이 '공경함'은 부모님의 상태가 존경을 받을만한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실행해야 함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다. 또한 부모 부양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려 한 당시의 불법적 위선과 외식을 꾸짖으신 마가 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 중 '고르반'의 핑계가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자성해 본다. 즉, 신앙생활을 이유로 부모 봉양을 소홀히 했거나 책임에서 떨어진 불효를 범한 경우는 없었는지, '주 안에서'의 순종'을 이유로 부모님 공경의 자세를 흐뜨리지는 않았는지 반추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금년 추석에도 고향을 찾아 쟁반같이 떠오르는 감동적인 보름달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에 젖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프리카 르완다와 같이 비참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지구촌 곳곳의 이웃들에게는 그 달이 비애와 절망으로 보일 것이며,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수심에 가득하여 그 달을 볼 것이다. 보는 이의 심경에 따라 달리 보일 보름달, 우리 신앙인의 마음의 창에는 진정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고르반(Chorban) / 하나님께 바친 성물이나 돈. 고르반으로 성별된 것은 결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음(레1:2, 마27:6).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것을 가장하여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였음(막7:11).



✦ 순례자 컬럼 ✦

무덤을 너머서

높고 푸른 새 하늘의 정기가 온 우주에 가득한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즐거운 추석을 맞아 무덤을 찾아 산으로 간다. 그것은 실로 이상한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이란 흙으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죽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하거나 연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인류의 역사와 경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약속은 영원 무궁토록 있다."

추석에 생각해 보는 일

부모님께 드릴 것



최 병 호 (목사, 구제위원회 지도)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 부근은 때 아닌 차량 홍수 사태를 이루었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다. 추석 성묘를 앞당겨 치루려는

행렬이었던다. 추석 연휴에 혼잡한 교통을 피해보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주말 성묘객의 행렬이 여행사나 항공회사들이 추석연휴에 호경기를 누리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물론 고향으로 달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비해 그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름답게 지켜져야 할 우리의 것들이 간편화, 형식화되어가는 한 단면을 보는 것같이 웬지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가운데 유난히 우는 자식은 고인의 생전에 불효자였던지, 유감이 많았던 자식이라는 옛 말이 있다. 살아계실 제 마음을 드려야 할 부모님께 고인이 되고나서의 형식적인 제사나 성묘가 면죄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올해도 추석은 다가왔고 대이동은 시작될 것이다. 자동차 도로가 주차장같이 변해버릴 귀향길을 헤치고 고향에 가서 자기 자랑, 자녀 자랑, 성공담이나 늘어 놓고 포장된 선물이나 술머시 내려 놓으며 부모님 마음에 아쉬운 찬 바람만 행하니 일워놓는 명절이 되지 않아야 한다.

추석이라서 부모를 찾고 형제를 만나는 것으로 효도와 우애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도 쉬운 일일 것이다. 물질이 없던 시절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곧 돈'인 요즘 세상에 평소 자주 찾아 쉽고 살피드리고 마음을 드러 인사하고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서, 마음을 드러 부모와 형제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에 바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참 효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지난 주일, 사랑부에서는 교회의 여러 어른들과 학부도들을 모시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학습·세례식을 거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특수교육부서인 사랑부가 출발한 지 2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아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작은 수고들이 영글어 배풀던 사랑을 이제는 아이들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무언가 가르치던 입장에서 이제는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위치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락이, 옥동이, 병훈이, 기방이, 희석이, 이삭이, 동욱이, 경철이, 송이, 여울이의 아빠가 되어 주님께 서 부어 주시는 사랑 가운데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현재 70명의 지체부자유아, 정신지체아 및 자폐아들이 매 주일 오후 두 시,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 중 20명은 「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장애자로서 세상에서는 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지만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

사랑부 「사랑의 큰 잔치」를 마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큰 잔치

왕 경 래 (집사, 사랑부 교사)

▶책임있는 신자가 될 것을 서약하며
(세례식에서의 서약)



로 이들을 찾아 오시어 친구 삼아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올 때, 뇌성마비에 간염까지 겹쳐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송락이는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옥동이는 무연고 장애자인데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으로 올해 2월, 세번의 대수술로 중환자실을 오가면서도

예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더니 지금은 치료받고 국민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정상이나 가지는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영혼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부에는 현재 4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 한 명마다 교사가 필요한 것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번 「사랑의 큰 잔치」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보다 많은 분들이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두 개의 가을 프로그램

① 교회학교 교사 교육 -

「새 시대 새교육」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목)과 30일(금) 양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다.

송재천 교수(장신대)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의 강의를, 오인택 교수(연세대)가 '교회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교회학교 전교사와 1995년도 교사 지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93교사체육대회
(1993. 10. 3. 강변고수부지)▶

② 교회학교 교사 체육대회 -

올해도 교사체육대회를 10월 3일(월)에 성북구 민체육관에서 가진다. 우리 교회의 11개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게 될 이 행사는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는 주제 아래 거행된다.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십시오

- 초당주차장, 중소기업은행 주차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번 주부터 교회 뒤편의 초당주차장과 중소기업은행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남빌딩주차장, 제일은행주차장, 중소기업은행주차장, 한일증권앞, 삼성가전 앞, 초당주차장, 보람은행주차장, 교회주차장)



- 교회 지하와 본당 앞 주차공간은 장애인과 새신자에게 양보합니다.
- 주일에 종일 주차하는 차량은 대남빌딩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부득이한 도로 등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정상적인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관리부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서울교회 차량관리부

· 제 7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식 ·

-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 79회 총회에서는 군목(軍牧)의 수를 줄이고 군승(軍僧)을 증원하겠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 문제의 중대성을 통감하고 범교단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 안수건이 총 투표수 1,321표(과반 661표) 중 찬성 701표, 반대 612표, 기권 8표로 가결되어 헌법 개정위원회로 보내졌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각 노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51개 노회 중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소망부 신앙특강 노년기의 신앙과 가정 (자녀, 고부, 손자 관계를 중심으로)

강사: 심상권 목사

9월 25일(주일)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소망부실(3층)에서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2.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3. 비전 2000운동을 은혜 중에 준비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